

'익산 문화재 야행' 개최

백제왕궁·탑라마에서 12~14일

익산시는 '2021 문화재야행'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백제왕궁(왕궁리유적)과 탑라마를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15~21일에는 온라인 야행과 행사장 사후전시를 한다.

이번 야행에는 전북도교육청과 학교교육원, 부여문화재연구소, 마한백제문화연구원 등 30여 단체가 참여해 내방객들에게



세계유산 백제왕궁의 멋과 지역 문화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

한다.

또 소원을 담은 풍등 달리기 백제왕궁 달빛가을, 지역 7개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어울림한마당', 지역민사가 전해주는 백제이야기 백제를 말한다 이야기콘 등 32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체험행사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익산문화재 야행 홈페이지(<http://iksan-night.kr>)에서 하면 된다.

야행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이원 생중계된다.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온라인 운영 및 행사장 사후 전시를 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는 1일부터 군산대IC의 불완전 교차로 구조개선을 통해 옥구읍방향에서 새만금북로 우회전 진입이 원활해진다고 밝혔다.

군산대 교차로 진입램프 '개통'

옥구읍~전주방면 구간 개통 새만금북로 진입 원활

군산시는 1일부터 군산대IC의 불완전 교차로 구조개선을 통해 옥구읍방향에서 새만금북로 우회전 진입이 원활해진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개통된 국도 21호선의 군산대 IC는 그동안 시가지로의 연결과 새만금 및 산업단지, 전주 방면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요충지이나 군산대 교차로가 불완전 입체교차로로 새만금북로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 시민 불편을 야기해왔다.

지난 2014년 대학로에서 새만금 방면 연결로가 신설되며 일부 교통편의 개선됐지만 옥구읍 방면 진입 시 좌회전 신호를 이용하느라 입체교차로 역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군산대 IC의 불완전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군산대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 10월 공사 완료했다.

앞으로 옥구읍 방향에서 새만금북로 우회전 진입이 원활하도록 변경돼 운전자들의 안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산대 IC의 불완전 교차로 구조개선을 통해 찾은 신호대기와 교통체증 불편을 주던 군산대교차로의 새만금북로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1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군산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신속한 제설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목표로 '2021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본격적인 동풍기 시작 이전인 오는 14일까지를 제설대책 사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 차량 입차운영, 제설장비 사전 확보, 제설장비 사전 점검 및 수리, 모래주머니 사전 비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 까지를 집중기간으로 지정해 제설대책 상황반 상시 운영 및 폭설 시 신속한 도로제설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신속한 제설 추진을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 수립, 제설 우선순위 지정, 책임 제설노선 지정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군산=고병만기자

원광대, 중소기업기술혁신 산학연 부문 국무총리상

원광대학교는 '제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산학연 부문 기술협력 유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연구기관·기술인력 등 기술혁신 유공자를 격려하고 기술혁신 의지를 다지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원광대는 지난 1994년 9월부터 지역 컨소시엄 사업을 시작으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기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82건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대학에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정착시키고 전문 인력 풀을 이용해 전북지역 및 타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 애로 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R&D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익산=이득훈기자

'제3회 로컬라이즈 페스티벌 개최'

군산을 탐험하는 법 창업팀과 함께 추진 6일부터 8일간

로컬라이즈 군산, 지역활성화 위한 로컬 페스티벌 26개 창업팀과 함께 추진 11월 6일부터 8일간 진행

'군산을 탐험하다'라는 콘셉트로 군산 영화동, 월명동 그리고 개북동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부산과 인진, 군산의 로컬맥주 선보이는 팝업 전시 '항구시리즈-로컬맥주전'도 오

군산 영화동을 거점으로 사회혁신 창업가를 육성하는 '로컬라이즈 군산(운영사 언더독스)'이 로컬 창업가와 협업해 로컬라이즈 군산 워크(이하 '로컬워크')를 선보인다.

로컬라이즈 군산은 군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컬 창업과 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다. 2019년을 시작으로 군산 원도심 기반으로 활동할 창업가를 선발해 육성했으며 2020년에는 창업 팀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했다.

2021년에는 26개 창업팀과 함께 로컬 창업팀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로라워크를 진행한다.

로컬라이즈 군산은 2019년부터 해마다 10월이면 로컬 창업팀의 활동을 지역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페스티벌을 진행해 왔다. 2019년에는 로컬라이즈 타운을 중심으로 군산 영화동에서 로컬라이즈 업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군산을 즐길 수 있는 로컬라이즈 온오프라인 페스티벌 '군산을 보내드립니다'를 진행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올해 진행되는 2021년 페스티벌은 로컬라이즈 군산 워크라는 이름으로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군산을 탐험하다'라는 콘셉트로 군산 영화동, 월명동 그리고 개북동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군산 우리술 보틀샵 '술 읽는 상점'과 함께 하는 'read you drink' 술상 우리술 시음회부터 ▲군산 꽃잎다채년공예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감성소품 만들기' ▲나만의 TEA를 직접 만들어보는 블루머스타드 스튜디오의 'DIY TEA ONE DAY CLASS' ▲일본식주택 게스트하우스 화담여관이 기획한 군산 투어 '우리만 아는 군산 여행' 등이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 배달의 명수, 안전한 축산물 배달 위한 업무협약

군산시는 공공배달업 배달의명수가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및 (주)셀비오(대표 변형완)와 '공공배달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배달의명수 내 축산물이력정보 조회기능을 적용해 축산물의 바른 제공을 실시하고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 6,000원 할인쿠폰 이벤트(정육구매 시)를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축산물이력제단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서 축산물의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공공배달업을 통한

축산물 배달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셀비오에는 식물영양제로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이스트팩과 친환경포장지를 배달 가맹점에 지원해 배달문화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배달의명수는 음식외의 정육, 꽃집, 건강원 등이 입점해있으며 주 50건 찾고 있고 앞으로 오는 12월 마트, 로컬푸드 외에도 반려동물 용품 등 다양한 업종이 선보일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인구정책, 실천협약 동참기관 협의 나서

군산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공동체 유대감 조성을 위해 '인구정책, 함께 해주소' 인구정책 실천협약 체결을 추진한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인구정책 실천협약은 관내 공공기관 대학교, 의료기관 등과 함께 '인구정책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시 인구정책 업무 통합 등이다.

주요내용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 공감 ▲군산시 인구정책관련 사업 동참(홍보) 협조, ▲군산에 산다면, 군산에 주소!' 동참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의 협의회관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과 인식개선사업을 함께 홍보하고 동참해 임신·출산·육아 교육에 지역이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함께 하게 된다.

또한 협약기관은 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를 일치하지는 바른 주소 갖기 운동 '군산에 산다면, 군산에 주소!' 등을 같이하며, 실천협약을 발판으로 군산형 인구정책 의제를 함께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호재로 작용해 군산시 인구가 증가한 바 있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인 2020년도 합계출산율이 0.954명으로 전국(0.897)과 전북(0.909)보다 높지만, 지역의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인구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인하므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정제하여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NH 농협

축! 전주매일 창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진포건강미 (군산농협)

미성청결미 (서군산농협)

못잊어신동진 (옥구농협)

옥이슬 (옥산농협)

아리울 (동군산농협)

큰들의꿈 (대야농협)

옥토진미 (회현농협)

군산짬뽕 라면 (군산원예농협)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김태호 지부장

군산농업협동조합 박형기 조합장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김기수 조합장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봉주 조합장

옥산농업협동조합 박규석 조합장

동군산농업협동조합 박연근 조합장

대야농업협동조합 민윤기 조합장

회현농업협동조합 김기동 조합장

군산원예농협 고계곤 조합장